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12. 08.(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3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0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2021-54-176)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0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의결주문입니다. 2020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31조에 의거 방송사업자가 2020년도 실시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고, 평가 대상은 총 154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 TV 부문은 전년 대비 총점이 MBC는 하락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상승하였으며, 평가점수는 KBS1(608점), MBC(573점), SBS(543점), KBS2(522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BS는 전년 대비 총점이 55점 상승하였고 총점은 59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민방 TV는 전년 대비 총점이 대구방송, 청주방송, 경인방송은 하락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상승하였습니다. 평가점수는 케이엔엔(480점), 대전방송(474점), 강원방송(467점), 울산방송(466점), 대구방송(459점), 광주방송(451점), 전주방송(446점), 제주방송(431점), 청주방송(414점), 경인방송(40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라디오 AM·FM는 전년 대비 총점이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지상파 DMB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비(非)지상파 방송사업자 평가결과입니다. 종합편성 PP의 경우 전년 대비 총점이 JTBC만 상승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모두 하락하였으며, JTBC(495점), 채널A(477점), TV조선(474점), MBN(44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전문 PP는 전년 대비 총점이 연합뉴스TV는 상승하고 YTN은 하락하였으며, YTN(417점),

연합뉴스TV(3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MSO는 전년 대비 총점이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CMB는 상승하고 LG헬로비전, 현대HCN은 하락하였습니다. SK브로드밴드(380점), LG헬로비전(368점), 현대HCN(356점), CMB(350점), 딜라이브(33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은 전년 대비 총점이 24점 상승하였고, 총점은 37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홈쇼핑 PP의 경우 전년 대비 총점이 GS SHOP,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이 하락하고, 나머지는 상승하였습니다. GS SHOP(441점), 홈앤쇼핑(423점), 현대홈쇼핑(419점), CJ오쇼핑(418점), 공영쇼핑(411점), 롯데홈쇼핑(409점), NS홈쇼핑(398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이의신청 심의결과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평가」 관련 의견, 공영홈쇼핑의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관련 의견 그리고 SBS의 「수상 실적 평가」 추가자료 평가 관련 의견은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 제재에 따른 MBN의 재무제표 정정고시 관련 감점 미반영에 대한 의견과 우리홈쇼핑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 의견은 평가 규칙에 의거하여 불수용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방송평가위원장을 맡았는데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는 각 방송사의 한 해 동안의 실적과 노력을 평가하여 보다 나은 방송, 또 품격 있는 방송, 신뢰받는 방송을 지향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법의 취지대로 시청자위원회 제도나 옴부즈맨 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시청자들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지 방송윤리강령이 정한 자율 규제 제도가 방송인들의 취재 행동강령을 규정하여 콘텐츠물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방송사의 공적책임과 방송윤리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실시해 온 방송평가는 부분적인 취약점을 보완해 오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일부 방송사들이 방송평가를 의례적인 것이나 혹은 평가를 위한 평가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 속에 다소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따른 뒤늦은 이의제기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된 방송평가 규칙을 잘 숙지하시고 다음부터는 기한 내 이런 자료 제출 미비로 인한 논란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KBS 건에 이어 이번에도 SBS가 똑같은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의제기는 방송평가상의 오류나 착오 등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해 두고자 합니다. 이번 방송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 측과 더 소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더욱 개선하여 방송평가가 방송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방송평가를 위해 애써 주신 김창룡 위원님을 비롯해서 평가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2020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심의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의 방송평가가 2021년 12월에 됨으로 인해 이것이 과연 방송평가가 적시에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내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었고 올해도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것이 2021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가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12월에 제기가 된다면 시장에서의 평가가 반영되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허가·재승인 때 예를 들어 5월에 재승인을 해야 할 방송사나 11월에 재허가를 해야 할 방송사의 경우 그 전 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재허가·재승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방송평가의 추진경과를 보면 6월에 평가자료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7~8월에 평가지원단을 통해 방송평가 자료 분석 및 검증을 하고, 10월에 평가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이의제기를 접수합니다. 지난해 제기했던 내용 중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빨리 예고했던 것을 실행하면 이 절차를 다소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평가가 제대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하는 속도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의제기가 기간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방송사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는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모두 원안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무슨 평가 때마다 매번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평가라는 것이 단순히 점수를 채점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가 제도를 통해 방송사의 공적책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송평가 역시 단순히 각사의 종합점수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수가 상승되었으면 어느 부분이 개선되어서 상승됐고, 또 부족한 부분이 하락했으면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하락됐고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방송사들의 개선 노력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방송사별 점수와 순위만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방송평가 결과로 나타난 방송사들의 구체적인 현황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해서 방송사들의 개선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 문제가 평가가 늦어짐으로 인해 평가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재허가·재승인과 연결됐을 때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정합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도 어려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 평가를 이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서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하셨으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21-54-177)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주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가> 2021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별지1]의 방송사업자를 재허가한다. <나> 위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허가유효기간은 [별지2]와 같이 한다. <다> 위 방송사업자들에게 [별지3] 기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재)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10개 사업자 1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는 총 10개 방송사 중 700점 이상 2개사, 650점 이상 700점 미만 8개사입니다. <5>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총평은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경영환경 악화에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기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이행,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의 기본적인 책무를 양호하게 수행 중입니다.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다소 보수적인 사업운영을 계획하지만 이동통신 매체와의 경쟁 및 차별화, 방송의 공적책무 충족을 위한 계획 보완이 필요합니다. 난시청 해소 등의 요구는 줄어들고 있으므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음질·화질 경쟁력 약화, 단말기 보급 축소 등을 보완함으로써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허가유효기간 및 재허가조건 등입니다. 허가유효기간은 700점 이상을 받은 (재)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과 (재)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은 5년으로,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재)기독교방송 CBS광주FM 방송국 등 8개 사업자 8개 방송국은 4년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허가조건은 ‘20년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에게 부가했던 재허가조건은 금번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가하되, 개별 방송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재허가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동전북FM방송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방송제작비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제출 및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에 대해서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고화질 채널과 동시송출 중인 저화질 채널의 동시송출 기간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권고사항은 라디오방송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의견·불만 제기 시 방송사의 처리절차, 재발방지 대책 등 청취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시행하고,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 관련 권고를 준수하며, 지상파라디오 방송의 수신환경 실태조사 실시 및 난시청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내용을 제작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6>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재허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재허가 대상인 국악FM방송국 등 총 10개 지상파 방송국은 전파법령에 따른 방송국 기술심사 사항에 부합합니다. 다만, 방송 주파수 관리 및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해 혼신 방지, 무선중사자 배치, 기술기준 준수 등의 기술적인 부관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른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50점 이상

평가된 10개 방송사업자 10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허가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재)국악방송 국악FM 방송국과 (재)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재)기독교 방송 CBS광주FM방송국 등 8개 사업자, 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4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나, (재)기독교방송과 (재)극동방송이 운영 중인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를 위해 전 과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근거하여 허가유효기간 단축을 요청함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의견과 같이, '20년 재허가 대상인 방송사업자 전체에게 부가한 관련 조건을 라디오 및 DMB방송국에 대해 동일하게 부가하고, 극동전북FM 방송국과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에 대해서는 개별 조건을 부가하고,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서는 청취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시청자위원회 구성, 난시청 해소 노력,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관련 제작가이드라인 반영 등 권고사항을 부가합니다.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재허가 세부심사기준 보완 등 정책건의사항은 향후 위원회 정책추진 및 제도개선 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12월 중 재허가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내년 2월 이후에 백서를 발간하며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은 이행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대상 사업자가 모두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재허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띈 것이 심사위원회 정책 건의사항 중 '지상파라디오방송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공적 재원 투입 등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라디오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른바 OTT 시대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이 미디어 시장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빈부격차 없이 난시청 지역만 해소하면 모든 것들이 해소되던 그런 시대가 아닌 또 다른 미디어 환경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대한 정책고려도 필요하지만 미디어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미디어의 콘텐츠 수용 능력이나 아니면 콘텐츠 향유 능력 같은 것들이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시대가 되는, 수신료를 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1만원 이상 되는 구독료를 내야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라디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지적한 심사위원회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미디어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제가 이번 지상파방송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10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능력, 재난방송 및 공익성 확보계획 등을 중점 심사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재허가 대상 사업자 모두 공적책임 수행을 포함한 모범적인 방송 운영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재허가 조건의 경우 공통 부가사항 외에는 개별 방송사의 상황에 맞춘 최소한의 조건만 부가하고, 여타 의견은 권고 사항으로 제시해서 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재허가 이후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사업계획과 허가조건 등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서 방송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은 원안에 동의하고, 안형환 심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으므로 이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2020년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20년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물 인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경과를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방송법 제72조에 의거 지상파방송과 종편PP는 순수외주제작물을 일정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고시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수외주제작물 인정기준을 보시겠습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한 프로그램은 외주제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0년도 하반기 점검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20년도 하반기 방영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제작사협회 등 외주제작 관련 협회가 가장 외주제작물로 선정하거나 외주인정지원단에서 선정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 결과입니다. KBS1 TV의 '내고향 스페셜', MBC '양코르 MBC 다큐프라임' 등 총 34개 프로그램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고, 인정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총 25개를 인정하고, 9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다음 최종 불인정 목록 9개 프로그램은 4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사 채널A는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찬·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방영권 구매 계약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정자문위원회에서는 외주사와 체결한 외주제작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순수외주제작 요건의 형식적이고 실질적 기준이 미충족된 점과 방영권 구매의 경우 저작권은 제작사 귀속이 일반적이지만 방송사로 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SBS '코로나시대 지역공향은 살아있다' 그리고 채널A의 '금쪽같은 내새끼' 방송프로그램은 증빙자료 미제출로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MBN의 4개 방송 프로그램은 특수관계자 제작으로 확인되어서 불인정 처리하였고, SBS '날아라 개천용', EBS 프로그램은 신고 오류로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보고 받으시면 12월 9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순수외주제작 인정업무가 방송통신사무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SBS '코로나시대 지역공향은 살아있다',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는 증빙자료를 회사에서 아예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까?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외주제작사에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제작물로 인정하는 기준에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으로 제작을 담당했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작가나 출연자, 주요 스태프와 실질적으로 계약했는지 그런 부분을 증빙하게끔 되어 있는데 증빙하는 부분은 외주제작사가 실제로 작가나 출연자에게 자금을 이체했는지 영수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주제작사가 돈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거래한 거래내역이 없는 것이지요?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반상권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 제작사가 방송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사는 제출하고 싶은데 제작사가 관련된 데이터를 주어야 하는데 제작사가 비협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은 그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SBS가 제출하고 싶지만 제작사가 자료를 내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내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방송사로서도 제작사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런 무자료 거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반상권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 무자료 거래라기보다는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작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방송사가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방송사는 소명하고 있습니다.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관계가 갑을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주제작사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가 제출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으로 스태프들에게 자금을 이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일일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순수외주제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인정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것이 2020년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물 인정결과에 관한 안건인데 MBN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자 중 MBN 같은 경우 2020년도 상반기에도 특수관계자 제작으로 2건이 불인정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4건이나 불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2020년 상반기 2건에 대한 계도가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2020년 하반기에 4건이나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같은 사유로 연속해서 대거 불인정을 받는 것은 외주제작물 의무편성 등 외주제작 인정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거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단순히 계도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반복되는 이런 잘못은 차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수외주제작 인정업무를 이관받은 방송통신사무소에서는 향후 업무 공백 없이 원만하게 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2020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12월 9일자로 방송통신사무소로 이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정 여부 판단하는데 차이가 생기지 않고 일관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선례를 파악하는 등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외주제작사의 육성·발전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심의한, 검증한 대상프로그램 중 인정된 것, 불인정된 것들을 정리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외주제작물 편성비율을 준수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문제에 대한 정보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종합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불인정을 받은 SBS, EBS, 채널A, MBN 같은 경우에 뭔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 회사들이 불인정받음으로 인해 편성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어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근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심의 대상 사업자들이 외주편성비율에 대해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실질적으로 인정자문위원회에서 판정 결과 모든 사업자가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지킨 것으로 결과가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런 상황인데 10개를 신청해서 6개가 인정되고 4개가 불인정됐다, 그런데 편성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개만 하면 된다면 그 부분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일부만 발표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참고로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다음부터는 편성비율 위반이 없더라도 안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전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전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4분 폐회 】